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2024년 10월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



I

한국의 문화적, 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 평가 척도 개발

-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 개발 -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협력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적, 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한국인 정신건강(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는 우울(National Depression Scale: NDS), 불안(National Anxiety Scale: NAS), 스트레스(National Stress Scale: NSS) 3종으로, 각각 11~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에 개발된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는 외국에서 개발되어 한국어로 번안해 사용되던 기존 정신건강 척도와 달리, 한국인의 문화적, 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문항을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환자들이 증상을 호소하며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 그동안 번안된 정신건강 척도 사용으로 인한 ▲ 사용료 지급이나 ▲ 저작권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 ▲ 한국인의 정서와 행동양식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학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 정서적 특성을 반영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한국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이번 정신건강 평가도구의 개발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 연구책임자인 계요병원 박주연 연구소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학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정신건강 척도가 개발되었으며, 향후 정신건강 진료 현장 및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박수빈 연구소장은 “많은 전문가와 학회의 노력으로 이번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가 개발될 수 있었다. 이번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인증을 받은 공인된 도구로서 건강보험 적용과 임상현장 활용·확산을 위해 학회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는 2024년 10월 18일(금) 2024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엄을 통해 최초로 공개됐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를 주제로, ▲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 개발 배경 및 의의, ▲ 한국인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 지침서 소개, ▲ 한국인 정신건강 척도 활용계획 및 전략의 내용을 발표했다.
- 한국인 정신건강(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의 각 지침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ncmh.go.kr)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으며,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한국인 아동 정신건강(우울, 불안) 척도도 개발 중으로 2026년 상반기 발표 예정이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466. 연구기획과. 2024. 10. 18.

II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운영

-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 대상 2년간 한시적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일(금)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이하 가족급여)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던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이라는 활동지원제도 취지에 비추어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예외) 도서산간 거주로 활동지원사가 부족한 경우, 천재지변,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제3호)

■ 이번에 시행되는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점에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GAS(발달장애평가, 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척도 30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로서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는 가족급여 대상으로 포함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자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

-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활동지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1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활동지원사 교육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총 50시간(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교육 이수하여야 함(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경우 일부 감면)

- 가족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작성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 등을 준비하여 읍·면·동으로 제출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운영했던 한시적 가족급여는 당초 2024년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용자의 활동지원사 연계 기간 확보 및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가족급여가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권이 있음에도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사회적 서비스로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482. 장애인서비스과. 2024. 10. 24.

III

첨단바이오 분야 최초·최고의 연구성과를 위해 한-미 국제공동연구 추진

-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24년 신규과제 선정 -
- 총 203건의 과제가 지원하여 국내-미국 평가단의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총 17건의 우수과제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성과를 목표로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2024년도 신규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1. 사업개요

-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한국과 미국의 첨단바이오 분야 우수 연구자, 연구그룹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주안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2024년 올해 처음 신설되었다.
-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범부처 공동사업단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단을 통해 과제 기획·평가·관리, 성과교류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 공모('24.2.21~3.21)를 통해 사업단장 선정(4.30)(서울대학교병원 김용진 교수)
- 또한, 동 사업은 국가 첨단바이오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바이오 분야에 해당하는 합성생물학, 감염병백신·치료, 유전자·세포치료,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등 총 4개 분야를 지원하는 ①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과제(연 30억원, 총 4년), 첨단바이오 분야 개별 연구자들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② 자유공모형 과제(연 20억원, 총 4년)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지원한다.

2. 선정절차

- 동 사업은 사업에 관심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2차례(5.17(금), 6.21(금)) 개최하였으며, 2024년도 신규과제로 총 17건의 과제에 대하여 6.10(월)부터 7.25(목)까지 46일간 공고를 실시하였다.
- 본 공고에 따른 과제 접수 결과, 총 203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과제 평균 경쟁률 11.8 대 1을 기록하여,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국내의 우수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하버드, 매

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스탠퍼드, 존스홉킨스병원, 컬럼비아대, 칼텍, 브로드연구소 등 미국 유수의 첨단바이오 분야 대학·병원·연구소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함께 지원하였다.

〈유형별 접수과제 수 및 경쟁률 현황〉

(단위: 개)

지원유형	지원규모 (1차년도)	과제수				경쟁률
		접수	사전검토 탈락	평가 대상	선정예정 과제수	
(유형1) 국가전략기술확보형	30억 원 이내/년 (15억 원 이내)	21	0	21	4	5.3:1
(유형2) 자유공모형	20억 원 이내/년 (10억 원 이내)	182	3	179	13	13.8:1
합계		203	3	200	17	11.8:1

- 또한 동 사업은 한미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국내평가단뿐만 아니라 미국평가단의 평가 절차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은 국내 평가위원과 미국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160여명에 달하는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였다.
- 평가단은 1차 서면평가(국내 연구개발과제 평가단)를 진행하여 선정과제의 3배수에 해당하는 50여 개의 과제를 2차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하였다. 2차 평가는 국내 평가단을 통한 발표평가와 미국 평가단을 통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총 17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3. 선정결과 및 향후계획

- 선정 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이익신청 및 과제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약 4년간 협력대상인 미국 공동연구개발기관 등과 함께 한-미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최종 과제 선정결과〉

■ (유형1) 국가전략기술 확보형 (총 4개)				
연번	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미국 공동연구기관
1	신변종 분야 바이러스 출혈열 연구센터	서울대학교	조남혁	Cleveland Clinic
2	딤러닝기반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혁신구조 항생제 개발	한국과학기술원	조병관	Wyss Institute
3	유전성 간, 눈, 귀 및 뇌 질환에 대한 최첨단 유전자 편집 치료법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형범	The Broad Institute of MIT and Harvar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4	유방암 정밀의료를 위한 멀티모달 인공지능 기반 공간적 오믹스 기술 개발 및 임상적 적용	서울대학교	권성훈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Harvard Medical School
---	--	-------	-----	--

■ (유형2) 자유공모형 (총 13개)

연번	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미국 공동연구기관
1	노화에 따른 항암 면역 기능 변화에 대한 대사 및 텔로미어 DNA 손상의 역할 규명 연구	서울대학교	이현숙	Harvard Medical School
2	멀티오믹스 및 CRISPR 스크리닝 기반 범용성 호흡기 바이러스 숙주표적치료법 발굴 및 검증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송문정	Harvard Medical School
3	DNA-양자 레저브라 컴퓨터 (DQR-COM)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승우	Wyss Institute
4	뇌염증 및 알파시누클린 병적 뇌조직 환경 개선을 통한 파킨슨 병 세포 치료법 최적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상훈	McLean Hospital
5	난치성 내성암 극복 차세대 신약개발 글로벌 사업단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조정희	Yal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6	인간 다중 장기 어셈블로이드 구축을 통한 뇌세포-뇌조직-신체기관 간 상호작용 규명 및 질환 치료 제어 기술 개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신근유	Yale University
7	인간 신경오가노이드 패넬을 이용한 면역-신경 네트워크 지도 작성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선웅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8	심장 섬유화 치료를 위한 섬유아세포 표현형 조절제 및 RNA 약제 개발	전남대학교병원	안영근	Mass General Brigham
9	디지털 사이토카인계, 그리고 AI 기반 조절 물질 개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석차욱	Boston Children's Hospital
10	생체 모방 전이 환경을 활용한 암 치료제 고속-복합-스크리닝: 미세유체칩에서의 기계생물학, 암 대사, 바이오마커 발견 및 예측 모델링의 통합	한국과학기술원	SHIN JENNIFER HYUN JONG	Brown University
11	3D HistoTIME: 인공지능 기반 혁신 항암 정밀 진단 및 치료 플랫폼 개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주상	National Cancer Institute University of Michigan
12	정밀 암 로봇 수술을 위한 암 표적 근적외선휘광/X-ray 멀티모달 영상 플랫폼 개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현구	Mass General Hospital
13	장-뇌 축 연구 기반 유효성 전자약 개발	한국과학기술원	박성준	Brigham and Women's Hospital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484. 보건의료기술개발과. 2024. 10. 25.

IV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2025년 사업을 준비합니다

- 유공자 포상, 지침 개정사항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 지원 대상 2천 명 확대('25년 정부안 3.4만 명) -
- 지방자치단체별로 11월부터 12월 중에 참여자 모집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9일(화) 오후 1시에 로얄파크컨벤션(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이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에서 취약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직업경험 제공과 소득보장 등을 위해 2007년부터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이날 설명회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장애인의 일자리 복지에 기여한 유공자 18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장애인일자리 우수 참여 장애인 11명과 우수 일자리 사례 9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을 수여하였다.

*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18명, 보건복지부 장관상 7명, 장애인개발원장상 13명

■ 장관상을 수상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들은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며, 일자리로부터 얻는 삶의 보람과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일자리가 삶의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주요 사례〉

-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김태식)** 사고로 인한 실명으로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안마사협회 도움으로 안마사자격 취득 후 장애인일거리에 참여, 복지관에 근무하며 어르신에 대한 안마시술을 통해 많은 보람을 느꼈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려고 함
- ▶ **(일반형일자리 윤정경)** 불편한 신체로 무엇을 할 의지도 없고 일상활동도 어려웠음. 장애인일자리로 자신감을 갖게되고 활발한 성격으로 바뀜. 이제는 사무실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원이 된 나를 보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음

- 또한, 설명회에서는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침과 일자리 전산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올해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될 예정인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참여자 모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 2025년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정부예산안 기준)은 2024년 3만 1,546명 대비 2,000명 확대한 3만 3,546명이며,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 특히, 복지형일자리란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유형을 고려하여 매년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있다. 올해 개발한 '무인단말기(키오스크)안내', '병원 내 환자이송보조 및 안내' 2종의 직무 유형을 2025년부터 신규로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복지형일자리 직무 수) '20. 33종 → '22. 38종 → '24. 45종 → '25. 47종(예정)

<장애인일자리 유형별 현황('25년 정부안 기준)>

구분	일반형일자리		복지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	특수교육 연계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근무시간	주40시간	주20시간	월56시간(주3~4일)		주25시간	
참여기준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미취업 등록장애인	특수교육 기관재학생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미취업 안마사
주요업무	공공 및 복지 행정업무지원		환경도우미, 주차단속, 사무보조, 사서보조, 보육도우미 등 47개 직무		식사지원, 이동지원 등 보조업무	출장안마 서비스 제공
근무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공공기관,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노인요양기관 및 시설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
월 급여	210만원	105만원	56만원		131만원	131만원
일자리수	7,740명	4,075명	19,094명		1,277명	1,360명

※ '25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11월부터 12월 중에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소득수준, 장애정도, 참여경력 등 선발기준 및 면접을 통해 선발된 참여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하게 된다.

* 참여자 모집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모집 시기 등이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 필요.

- 보건복지부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수단이 아닌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소중한 수단”이라고 말하며, “장애인의 일자리 복지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정부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해경 원장은 “개발원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직무개발, 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 업무수행담당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22501. 장애인자립기반과. 2024. 10. 29.